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②6

2015년 11월 4일(수), 14:00~16:00

특별전 연계 강의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양 성 혁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모두가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이 시작한 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교육→교육자료→강의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대강당 좌석번호가 표기된 교재를 1시부터 오신 분 순서대로 배부합니다. 좌석번호가 없는 교재를 받으신 분은 지정 좌석에서 수강하실 수 없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를 대상으로 한 수업인 만큼, 강의 진행 중에는 질문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업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부득이 퇴실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26

특별전 연계 강의 /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140-797)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300

www.museum.go.kr

인 쇄 (주)계문사 / (02)725-5216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양 성 혁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들어가며

신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와 달리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간의 질서가 확립되어갔던 시기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바로 후빙기의 시작과 함께 변화된 자연환경에 사람들이 적응한 결과이다. 신석기시대가 이전의 구석기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성공적인 정착생활이다. 구석기시대 말 모든 집단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은 바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정착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삶이 안정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1. 따뜻한 시대의 시작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자연에 의존해 살았던 인류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약 1만 5천 ~1만 년 전 인류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 변화라는 재앙을 접했고, 결국 이를 극복하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제4기에는 4~5회의 빙하기와 3~4회의 간빙기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5만~1만 년 전 지구는 뷔름기라는 빙하기였다. 이 기간 중 약 1만 8천 년 전이 가장 추웠던 시기였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지구의 기온은 점차

따뜻해졌다. 중위도 지방까지 덮여 있었던 빙하가 점차 녹기 시작하면서 낮은 지대는 물에 잠기고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면서 1만 년 전 무렵에는 지금의 해안선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다. 또한 수분 증발량이 증가됨에 따라 한랭 건조했던 날씨는 점차 온난 다습한 날씨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식물상의 변화였다. 중위도 지방까지 넓게 퍼져있었던 냉대성 침엽수림은 점차 온대성 활엽수림으로 바뀌어 갔다. 기후와 식물상의 변화에 따라 추운 기후에 적합한 털코끼리나 털코뿔소 등 대형포유류는 점차 이 땅에서 사라져 갔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인류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면서 앞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자연으로부터 식량을 조달하였던 인류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변 동식물의 변화는 인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찾도록 하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추운 지역으로 올라간 동물을 찾아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혔던 집단들도 있었으며, 어떤 지역의 집단은 사냥도구를 바꿔 이전에 잡지 않았던 동물들을 잡기도 하였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새로운 저장 방법을 개발하여 식량이 부족한 계절을 대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도구와 식량 획득 혹은 저장 방법을 개발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신석기문화이다.

2. 새로운 문화의 태동

지금으로부터 1만여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한반도의 모습이 현재 지형으로 바뀌는 시점에 한반도에도 새로운 문화의 기운이 싹텄다. 한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마지막 빙하기에는 아시아 대륙 끝에 연결되어 있어 당시에는 중국 대륙은 물론 한반도 본토와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약 1만 5천 년 전부터 서서히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제주도는 점차 섬으로 분리되었다.

제주도가 완전히 섬으로 분리된 약 1만 년 전, 제주도에는 이전까지 한반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문화 양상이 나타난다. 구석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석기인 쯔돌날몸돌[細石核]을 비롯해 신석기시대의 지표 유물로 인식되는 토기 조각과 화살촉이 함께 출토되는 유적이 제주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고산리 유적이다.

(1) 토기를 만들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고산리식 토기이다. 고산리식 토기는 제주 고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기물 혼입 토기를 중심으로 설정된 토기 형식이다. 한반도 초창기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제주도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고산리식 토기는 적갈색의 무늬가 없는 토기로, 기형은 바닥에서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한번 꺾여 올라가는 바리가 기본이다. 바닥은 주로 납작바닥이며, 전체적으로 20cm 이하의 소형 토기이다.

이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토기 안팎으로 식물 줄기 등 유기물질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토기를 빚을 때 바탕흙에 보강제로 첨가한 식물 줄기, 동물 털 등 유기물질이 토기를 구울 때 타고 그 흔적만 토기 표면에 남은 것이다. 이러한 유기물 혼입 토기는 일본열도, 러시아 시베리아 등지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동북아시아 일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토기 출현기의 토기 제작 수법임을 알 수 있다.

고산리식 토기의 제작 시기는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한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 측정 및 유구 내 목탄 시료에 대한 AMS 측정 결과 9천 6백 년 전 무렵에 집중되고 있어 1만여 년 전에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 일대에 최초의 토기가 나타나는 시기는 18000~15000년 전 무렵으로 고산리식 토기 제작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고산리식 토기가 520~860℃의 비교적 고온에서 소성되었고, 일부 토기에서 마연기술의 확인된다는 점에서 고산리문화의 토기제작기술은 동북아시아 일대의 출현기 토기보다는 다소 기술력이 진전된 것으로, 동북아시아 출현기 토기와 고산리문화 상한연대의 시기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냥도구가 변하다

고산리식 토기와 함께 관심을 끄는 유물이 화살촉이다. 구석기시대 후기에는 주로 스페찌르개나 쏜돌날로 만든 창을 던지거나 찔러 털코끼리 등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대형 포유류는 북쪽 추운 지역으로 올라가고, 이들을 대신하여 중소형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이 수가 늘어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으로서 새롭게 나타난 사냥도구가 활과 화살이다. 활과 화살은 작지만 날쎈 동물들을 먼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인 셈이다. 고산리 유적의 화살촉은 전체 성형석기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활발한 수렵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고산리 유적의 화살촉은 눌러떼기 방식으로 양면을 떼어내면서 형태를 잡아간 것이다. 화살촉은 스페가 있는 것, 스페가 없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물고기 모양의 화살촉이다. 일부에서는 이 물고기모양의 화살촉을 어로활동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새롭게 보이는 사냥도구로는 유연형 침두기와 유경 침두기가 있다. 두 종류의 침두기 모두 화살촉 제작 방식과 같은 눌러떼기 방식으로 양면을 떼어내면서 형태를 잡아간 것으로 나무자루에 꽂아 창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유연형 침두기는 장흥 신북 유적, 순천 월평 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현풍 성하동 유적 등 한반도 구석기시대 후기 최말기 유적에서도 보이지만, 유경 침두기는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형식이다. 유경침두기는 스페를 가진다는 점에서 구석기시대 후기 돌날을 이용한 대표적인 석기인 스페찌르개와 공통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눌러떼기 방식으로 형태를 잡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유경 침두기를 투창기[投槍機, atlatl]를 이용한 창으로 보기도 한다.

(3) 나무를 가공하다

간돌도끼는 석기의 일부 혹은 전면을 갈아서 만든 도끼로, 목재의 벌채나 가공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간돌도끼는 날의 형태에 따라 양날돌도끼[兩刃石斧]와 외날돌도끼[單刃石斧]로 구분된다. 양날돌도끼는 날 부분 양 면을 모두 간 것으로

나무를 벌채, 절단, 절개하기 위한 도구이다. 외날도끼는 자른 목재를 가공하여 여러 기구나 목조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일종의 자귀날이다. 양날도끼와 외날도끼는 자루에 장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양날도끼는 도끼날 방향과 도끼자루 방향이 서로 평행을 이루지만, 외날도끼는 도끼날 방향과 도끼자루 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룬다.

이전에는 석재를 갈아서 석기를 만드는 간석기 제작기술은 신석기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기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 서남아시아, 일본 등지에서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갈기 수법이 확인되었으며, 한반도에서도 장흥 신북 유적, 진주 집현 유적, 임실 하가 유적 등 구석기시대 후기 유적에서 확인됨에 따라 한반도에도 이미 구석기시대 후기에 간석기 제작 기술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석기시대의 간돌도끼는 간헐적으로 확인되지만,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수가 증가한다. 이는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삼림 개간은 물론, 다양한 도구의 자루와 움집의 기둥 제작 등 목재 가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돌도끼의 사용이 늘어난 결과일 것이다.

(4) 식물성 식료가 증가하다

갈돌과 갈판은 한 세트를 이루며 식물성 식료의 분쇄 및 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된 가공도구이다. 한반도에서는 대전 용호동 유적에서 갈판으로 추정되는 석기가 확인된 예가 있으나 구석기시대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신석기시대에 접어들어서야 그 수가 증가한다. 신석기시대 초기의 갈돌과 갈판은 밤이나 도토리 등의 견과류, 칩이나 고사리 등의 뿌리채소의 분쇄·가공 등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식물성 식료 다양화와 가공의 증가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침엽수림에서 참나무를 대표로 하는 낙엽활엽수림으로 식생이 바뀔에 따라 주변에 도토리와 같은 증가하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갈돌과 갈판 등 식물성 식료의 가공도구가 제작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갈판과 갈돌에 남아 있는 전분을 추출하여 전분의 형태를 비교하여 어떤 식물성 식료를 가공하여 먹었는지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옛 전통은 남아 있다

고산리 문화 단계 석기의 또 다른 특징은 줍돌날몸돌과 줍돌날의 존재이다. 줍돌날몸돌은 구석기시대 후기의 석기 제작 기법 중 기획성이 가장 뛰어난 생산 방법 중 하나이다. 정형적인 줍돌날몸돌은 다량의 줍돌날을 생산하기 위해 양면 조정을 통해 예비 소재blank를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타면조정격지spall가 발생하기도 한다. 줍돌날몸돌의 형태는 출토 양상에 따라 다양하며, 줍돌날을 떼어낸 후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단면이 켜기모양이다. 그러나 구석기시대 후기 최말기가 되면 한 면만 조정하거나 아예 조정하지 않기도 한다. 고산리 문화 단계의 줍돌날몸돌은 대체로 정형적인 양면 조정의 켜기형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한 면만 조정하거나 생략된 부정형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강정동 유적에서는 양면 조정된 켜기형 줍돌날몸돌과 타면조정격지가, 삼화지구에서도 타면조정격지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고산리 문화는 한반도 구석기시대 후기 줍돌날 문화가 제주도로 유입된 이후 토기 제작과 화살촉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신석기문화의 시작

고산리 문화 단계의 이러한 유물 조합은 동북아시아 전체를 보았을 때, 구석기시대 후기 최말기에서 신석기시대로 전환되는 양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고산리 문화는 구석기시대 후기 최말기 줍돌날문화의 전통 속에서 토기와 화살촉을 활발하게 사용한 한반도 초기 신석기문화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산리 유적의 OSL연대측정결과 유적의 생토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이 약 1만 1천 년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고산리식 토기가 9천 6백 년 전 무렵이란 결과가 나오에 따라 유적의 형성 연대도 약 1만 년 전,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신석기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3. 새롭게 등장한 풍요로운 먹거리

후빙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대륙의 고위도 지역을 덮었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다. 낮은 지대의 산줄기와 계곡은 서서히 물에 잠겨 바다가 되었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들은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3면의 바다로 둘러싸여지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렵던 바다 자원 활용이 쉬워졌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의 영향으로 어족 자원이 풍부해졌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큰 조수간만 차와 복잡한 해안선의 영향으로 넓은 갯벌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조개류가 서식하게 되었다.

한편 삼림은 침엽수림 중심에서 활엽수림 중심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밤, 도토리 등 나무 열매도 풍부해졌다. 이와 함께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였던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풍부한 바다 자원과 식물 자원, 동물자원을 바탕으로 점차 한 곳에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식량 자원을 단기간에 집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1) 바다를 개척하다

자연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석기인들이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곳은 강과 바다였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곳곳에 강과 바다가 생겨났으며, 그 곳에는 물고기, 조개, 바다 포유류 등 식량 자원이 풍부하였다. 바다 자원을 이용하는 양상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구별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한반도는 바다와 접한 지역이 많아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바닷가에 위치한 많은 수의 패총 유적과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동물의 뼈, 바다 자원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던 다양한 도구들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장 오래된 어로 활동의 증거는 부산 동삼동 유적, 창녕 비봉리 유적, 울진 죽변 유적, 양양 오산리 유적 등지에서 발견되며 기원전 6천 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바닷가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유적들에서는 당시 식량으로 이용했던

각종 어류와 패류, 바다 포유류들의 뼈가 발견되고 있으며,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낚시와 작살, 그물추 등은 물론이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던 증거인 배와 배를 짓는 노 등도 발견되어 신석기시대의 어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동물을 잡고 기르다

사냥은 채집과 함께 가장 오래된 식량획득방법이다. 사냥된 동물의 고기는 인간에게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뼈와 뿔, 이빨, 가죽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신석기시대에는 이전의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사냥 대상이 중소형 동물이나 날짐승으로 바뀌게 된다.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활에 의한 사냥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포획환경의 변화와 사냥방법의 다양화는 많은 동물 뼈를 남기게 되는데 대부분 동굴유적이나 패총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된 육지동물은 사슴, 사향노루, 소, 멧돼지, 호랑이 등 30여 종이다. 특히 사슴과 멧돼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고기 양도 많고 고기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죽, 뼈, 뿔, 이빨 등은 골각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물 사육의 흔적이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동물이 개와 돼지이다. 개는 전기 단계부터 확인된다. 대부분의 유적에서 개체를 이루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식용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포항 유적과 연평도 까치산 패총에서 완전한 개체로 확인되고 있어 애완용으로 사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돼지는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에 동북지역에서 가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혀 새로운 방법, 식물을 재배하다

한반도 신석기시대는 기본적으로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채집 사회였다. 그러나 온전히 사냥과 채집으로 삶을 영위해 나갔던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신석기시대에는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자원의 활용을 넘어 더욱 중요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식물 자원의 재배라는 새로운 식량 획득

방식의 등장이다. 숲 혹은 초원을 개간하여 땅을 일궈 씨앗을 심고 관리하는 농경의 등장으로 인간과 자연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식량 생산 체계는 이후 여러 사회문화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신석기시대에는 식물 재배가 당시 생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에야 조, 기장 등 일부 식물의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그렇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식물 자료를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자주사현미경SEM 관찰을 통한 종의 판별, 방사성 탄소연대측정법을 이용한 연대 측정, 토기의 압흔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서 식물 재배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새로운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당시 재배된 조, 기장 등 잡곡류가 식량 자원으로 이용되기보다 의례 등 특수한 목적으로 재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 토기와 인간의 삶

토기는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그릇으로 인간이 화학적 변화를 깨닫고 이용한 최초의 발명품이다. 한번 불에 구운 점토는 이전의 점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불에 넣어도 타서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물에 녹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성질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토기의 성질은 인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요즘 식물성 식료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얻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식물 자원을 길들이는 즉, 농경 이전의 식물 자원은 동물 자원과 달리 독을 가지고 있어 생으로 먹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토기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음식 조리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식물 자원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불확실한 사냥 대신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 자원을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식생활의 안정은 사람들을 한 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여 빈번한 이동에 따른 노인이나 병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탈을 막고 여유 있는 삶의 향유와 새로운 문화 창조를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토기의 사용은 인류문화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1) 토기, 세상에 선보이다

우리는 흔히 토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를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라고 알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1만 2천 년 전 홍적세가 끝나고 충적세에 접어들면서 농경이 시작된 이후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토기 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를 토기가 없는 신석기시대[PPN; Pre-Pottery Neolithic]라 한다. 이후 8천 500년 전 쯤 토기를 제작 사용하였다. 이 시기를 토기 신석기시대[PN; Pottery Neolithic]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곳곳에서 홍적세에 이미 토기가 제작 사용되었던 흔적이 보인다. 중국 후난성[湖南省] 유찬안[玉蟾岩] 동굴유적에서 1만 8천 년 전~1만 5천 년 전의 토기가 확인되었고,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 오다이아마모토[太平山元] 유적에서는 1만 5천 년 전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역 오시포브카[Osipovka] 문화 단계의 오시포브카-1, 가샤, 흠미 유적 등지에서 바탕흙에 풀을 섞는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들은 홍적세 말, 즉 빙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최초의 토기를 제작 사용하였던 사람들은 수렵채집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다.

출현기 토기가 음식의 조리에 사용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리하기 위한 도구였을까?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도토리나 같은 견과류나 식물성 식료의 떼은맛을 우려내기 위한 도구, 물고기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도구, 조개류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 노지를 이용한 이전의 조리법과 함께 보조적인 식료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기가 최초로 제작 사용되었던 시기의 환경은 아직 빙하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추웠던 시기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동생활을 수렵채집을 방식으로 식량 자원을 얻었다. 그들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식량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는 먹지 않았던 식량 자원, 즉 식물 자원까지도 눈길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식물 자원은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토기는 보조적인 식료 처리 수단으로서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토기의 제작·사용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원개발과 함께 인간 식생활의 잡식화가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토기는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음식 조리

앞서 언급했듯이 토기는 홍적세 말 가장 추웠던 시기의 수렵채집 집단이 한정된 식량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적인 식량 처리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다. 즉 최초의 토기는 음식의 조리를 위한 용도, 자비용으로 만들어 사용되었다. 토기를 음식 조리기에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날로 먹거나 불에 구워야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삶거나 찌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날로 먹으면 질기거나 인체한 유해한 성분이 있어 먹기 어려웠던 식물 자원을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식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며 여유 있는 삶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비용 토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육안 관찰과 내용물 분석 등이 있다. 먼저 토기 겉면에 불과 접촉한 흔적이나 그을음이 남아 있는 토기는 조리 용기의 기능을 지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토기 안팎으로 붙어 있는 내용물을 분석하였을 때 탄수화물, 당분, 지방산 등이 추출된다면 이 역시 조리 용기로 볼 수 있다. 또한 토기의 형태에 따라 조리 용구로 추정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바리 모양 토기는 음식 조리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보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음식 조리는 불 위에 그냥 얹어 놓는 형태였을 것이다.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열에 대한 노출로부터 발생하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진 부분을 최소화한 길쭉한 형태의 바리 모양 토기가 가장 적합하다. 한반도 신석기시대 토기는 바리 모양 토기가 절대 다수이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의 용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체로 자비용 토기는 25~30cm 내외의 중형 토기로 보고 있다. 자비용 토기의 실례로 울산 세죽 유적, 창녕 비봉리 유적 등지에서 확인된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의 안팎 면에는 음식을 조리할 때 끓어 넘쳐 생긴 탄화물 자국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일부에는 토기 내부에 도토리가 원래 형태 그대로 탄화되어 남아 있다.

식량 저장

인류역사에 있어 농경이라는 식량조달 전략의 변화보다는 저장을 통해 잉여를 발생시키는가의 여부가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토기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식량의 저장이다. 신석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식량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였던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후빙기 이후 환경 변화에 따라 풍부해진 식물 자원과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곳에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식량 자원을 단기간에 집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특히 계절적 변동에 따른 주기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을 가공·저장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식재료의 건조, 훈제, 염장 등의 가공 방식이 개발되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토기는 식재료의 장기간 보존의 도구로서, 즉 식재료의 저장을 위한 도구로서도 이용되었다. 식재료의 저장에는 처음에는 구덩이나 풀로 만든 바구니 목기 등이 이용되었으나 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효율적으로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토기의 용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바리 모양 토기의 경우 지름이 대략 35cm 이상의 대형 토기를 저장용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의 저장용 토기는 무늬가 정연하게 시문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용도의 토기와는 그 형태와 문양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입지름이 좁은 단지의 경우 물 등의 액체 또는 나무 열매 등 적은 양의 음식물의 저장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신석기시대 말기 한반도 동북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형 토기가 만들어졌다. 이들 토기는 일종의 개인용 그릇으로 배식기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의 또 다른 기능

음식의 조리, 저장, 배식 등 일상생활용 토기 외에도 특수한 형태의 토기가 있다. 서울 암사동 유적, 강릉 초당동 유적 등지에서 사물의 모양의 본 떠 만든 미니어처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토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주로 의례행위와 관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 동삼동패총과 진주 상촌리 유적에서 일상생활용 토기가 독널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5. 조형 예술의 시작

흙이나 돌, 동물 뼈 등을 재료로 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든 신석기시대의 조형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자연과 인간 간 관계 설정의 매개체였다. 한반도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의 조형물은 모두 소형으로 그 크기가 10cm 이내로 손에 완전히 잡힐만한 크기이다. 대체로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도식화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크게 인체상(人體像), 인면상(人面像), 동물상(動物像)으로 구분된다.

인체상은 울산 신암리 유적·세죽 유적, 전남 완도 여서도패총, 함북 청진 농포패총에서 각각 1기씩 출토되었다. 4기 모두 토제로 그 단면은 판상(板狀)이다. 얼굴과 사지의 표현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일본 조몬시대 초창기~조기의 토우의 형태와 유사하다. 4점 중 2점은 성별을 구별할 수 없으나, 신암리 유적과 농포패총의 출토품은 봉긋 솟은 가슴과 잘록한 허리의 표현을 통해 여인상임을 알 수 있다. 인면상의 경우 눈, 코, 입 등의 특징을 살려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강원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1기, 함북 선봉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서 2기, 부산 동삼동패총에서 1기가 출토되었다. 동물상은 돼지·곰·뱀·개·새 등으로 다양하다. 옥지도패총에서는 멧돼지가, 동삼동패총에서는 곰의 머리가 출토되었다. 세죽 유적에서는 강치로 추정되는 바다포유류가, 강원 오산리 유적에서는 곰·물개 형상이, 서포항 유적에서는 망아지와 뱀의 형상이, 농포패총에서는 개와 새의 형상이 출토되었다. 옥지도패총과 오산리 유적 출토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리 부분만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결실의 가능성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다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들 조형물은 그 분포양상 있어 공간적으로 한반도의 동해안과 남해안의 유적에서만 확인될 뿐 내륙이나 중서부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교란층이나 지표에서 수습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간적으로는 신석기시대 초기~전기(기원전 6,000~3,500년)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조형물은 수렵채집 집단의 주술적 매개체로서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인상의 경우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구석기시대 후기에 이미 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보이는 여인상의 초기 형태의 모습은 크기가

5cm 내외로 손에 쥐기 적당한 크기이다. 엉덩이와 가슴의 표현으로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초기 여인상의 특징은 얼굴과 팔 다리의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세기 오키나와에서는 산모가 애를 낳 때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오지 고동을 손에 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유라시아 대륙의 여인상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보이는 여인상 역시 산모의 안전한 출산 혹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상징물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여인상이 신석기시대 중기(기원전 3,500~2,500년) 이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지만, 일본열도의 경우 초창기~조기의 단순한 형태의 인물상이 전기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서아시아에서 여인상은 1만 년 전 농경이 시작되면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대지를 숭배하는 지모신(地母神)으로서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6. 죽은 자를 위한 공간

공동체 일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동물 집단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의 애도가 동물의 그것과는 다른 점은 바로 무덤을 만들어 죽은 이에 대한 애착과 존경을 표시하고 나아가 그 영혼을 숭배하는 데 있다. 인간의 이러한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시신을 땅에 묻고 주변에 꽃을 뿌렸던 것으로 밝혀진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유적에서 보듯이 약 10만 년 전 구석기시대 중기부터 매장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도 구석기인의 뼈가 가끔씩 발견되지만 무덤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조사된 적이 없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면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크기나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던 무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동생활을 하였던 구석기인과는 달리 정착생활을 하였던 신석기인에게 있어 시신의 처리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을 것이다.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전염병 등으로 공동체의 위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물론 무덤이 반드시 위생학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행위 중 하나였을 것이다.

죽은 이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무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신석기인에게는 일종의 의례이자 신앙이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일원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표시물로서 무덤 자리를 고르고 시신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넣고 흙이나 돌로 덮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통과의례였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삼았을 것이다.

(1)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였나?

시신 처리에는 땅을 파고 묻거나[埋葬], 불에 태우거나[火葬], 물속에 넣거나[水葬], 나무나 바위 등에 올려 육탈(肉脫) 하는[風葬]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은 장법 상의 결과이다. 시신을 땅에 묻을 때도 단순히 땅을 파서 시신을 넣는 방식을 비롯해 독에 넣는 방식, 주위를 표시하기 위해 돌을 쌓거나 다른 시설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알려져 있다.

시신의 처리 횟수에 따라서 일차장一次葬과 이차장二次葬으로 나눌 수도 있다. 매장과 수장은 대부분 일차장이지만, 화장으로 타다 남은 뼈와 재를 수습하여 다시 처리하거나 풍장으로 육탈된 뼈를 깨끗이 씻어서 최종적으로 묻는 세골장洗骨葬의 경우 이차장에 해당된다.

매장의 경우 시신의 자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몸을 펴서 넣는 것은 신전장伸展葬, 몸을 구부려서 넣는 것은 굴신장屈身葬, 옆에서 묻는 것을 부신장俯身葬, 앉혀서 묻는 것을 좌장座葬, 세워서 묻는 것을 입장立葬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는 시신의 얼굴방향에 따라 세분되는데, 얼굴이 위를 향하는 앙와仰臥와 옆을 향하는 측와側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시신을 똑바로 펴서 하늘을 쳐다보는 형태인 앙와신전장이다.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무덤에는 통영 연대도패총·옥지도패총·상노대도 산동패총·여수 안도패총 등과 같이 구덩이를 파고 인골을 펴묻는 신전장의 예가 가장 많다. 범방패총과 가덕도 유적 등에서는 시신의 일부를 구부린 상태로 안치한 굴신장이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부산 동삼동패총과 진주 상촌리 유적의 독널[甕棺]을 이용한 예,

강원 춘천 교동과 같이 주거 공간인 동굴에 무덤을 만든 예, 경북 울진 후포리 유적과 같이 구덩이 안에 40여 명의 뼈만 추려서 매장한 예 등 다양한 무덤의 방식과 장법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신석기시대의 무덤이 아직 정형화 되지 않고 집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덤 양식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인천 시도 3지구, 부산 동삼동패총·금곡동 율리패총, 김해 예안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 적석시설을 무덤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2) 무덤 안에는 무엇을 넣었나?

앞서 언급했듯이 원래 무덤을 조성하는 목적은 죽은 이에 대한 애착과 존경의 표시로 그 영혼을 숭배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영혼 숭배를 넘어서 영혼 불멸의 세계관이 나타났다. 죽은 이가 생전에 착용했던 장신구나 사용했던 도구를 함께 묻어 주어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멀하지 않고 살아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석기시대 무덤의 부장 유물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풍부하지 않다. 대체로 토기, 돌도끼, 이음낚시, 숫돌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였던 도구를 함께 묻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물 이빨로 만든 발찌, 조개팔찌, 귀고리 등이 착용된 상태 혹은 착용되었던 신체 부위 주변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평상시에 착용하였던 장식품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무덤에서는 시신 위에 토기 혹은 토기 조각(특히 주칠토기)을 얹거나 시신 주변에 주칠토기의 안료로 추정되는 붉은 안료 덩어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한편 연대도패총, 가덕도 유적 등 일부 유적에서 무덤 간 부장품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음을 들어 당시 주민들 간 신분 혹은 지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나가며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의 물질적 표상인 토기와 간석기의 사용, 농경과 정착생활의 시작을 ‘신석기 패키지’라 부른다. 고든 차일드가 농경을 이후의 여러 사회문화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산양식으로 보고, 농경의 등장을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정의한 이후 신석기 패키지는 동시에 등장하여 인류 문화의 대변화를 이끌었던 것으로 이해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토기와 간석기는 지역에 따라 후빙기 이전 구석기시대 말부터 이미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또한 농경과 정착생활 역시 상관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그 시작이 일치하지 않는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정착생활과 농경이 이루어지고 난 후 대규모 정착 촌락이 형성되고 잉여 농업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토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반도, 일본열도, 시베리아 등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 최말기에 식물성 식량자원을 활용하는 도구로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결국 신석기문화는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변화된 자연환경에 인간이 기존 기술의 개선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삶의 양식을 통째로 바꾸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이에게는 위기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 신석기인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Note

Note

Note

Note

【 2015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 2015년 3월 25일(수)~11월 18일(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 오후 2시~4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대 상 : 일반 성인 누구나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 시	제 목	강 사	비 고
1	3. 25.	후기 구석기 시대의 예술	한창균(연세대 사학과 교수)	
2	4. 1.	신석기의 개념과 토기의 발생	신숙정(한강문화재연구원 원장)	
3	4. 8.	동북아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송호정(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4	4. 15.	신라의 지방문화와 촌락사회	김재홍(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5	4. 22.	테마전 연계 강의 서봉총 출토 금관 이야기	박진일(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과학으로 풀어보는 서봉총 금관 4. 21.~6. 21.
6	4. 29.	최근 발굴성파로 본 가야문화 이야기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 학예연구사)	
7	5. 13.	통일신라의 금속공예	이송란(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8	5. 20.	발해의 문화와 중앙아시아	강인욱(경희대 사학과 교수)	
9	5. 27.	특별전 연계 강의 발원發源, 간절한 바람을 담다. - 불교미술의 후원자들 -	신소연(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발원發源, 간절한 바람을 담다 - 불교미술의 후원자들 - 5. 23.~8. 2.
10	6. 10.	고려시대 개경의 유적과 유물	홍영의(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11	6. 17.	고려전기 불상 : 졸작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임영애(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12	6. 24.	기획전 연계 강의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	김용덕(한국외국어대 폴란드어과 교수)	폴란드, 천년의 예술 6. 5.~8. 30.
13	7. 1.	고려시대의 도자 문화	이종민(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4	7. 8.	고려 문벌의 역사적 특징	박재우(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15	7. 15.	조선의 미학, 분청사기	박경자(청주국제공항공화 문화재감정관)	
16	7. 22.	조선의 하늘과 과학	안상현(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17	7. 29.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18	8. 5.	조선의 백자	전승창(아모레퍼시픽미술관 관장)	
19	8. 12.	임진왜란과 문화 교류	이상훈(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획담당관)	
❖ 교육시설 휴지기 등으로 인한 휴강입니다.				
20	9. 16.	조선의 서울 한양 도성의 위상	홍순민(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21	9. 23.	조선시대의 풍수지리와 삶	김두규(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22	9. 30.	기획전 연계 강의 불사리 신앙과 탑의 장엄미	주경미(부산외국어대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고대불교조각대전 9. 24.~11. 15.
23	10. 7.	기획전 연계 강의 동쪽으로 온 불상들	배재호(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24	10. 14.	조선시대 궁중회화의 세계	박정혜(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25	10. 21.	민화의 가치와 아름다움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26	11. 4.	특별전 연계 강의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양성혁(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신석기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10. 20.~1. 31.
27	11. 11.	조선시대의 가족생활	이종서(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28	11. 18.	근대 시각매체의 도입과 전통미술의 변모	권행가(덕성여대 미술사학과 연구교수)	

※10월 28일 강의는 용산 이전 10주년 행사 관계로 휴강입니다.

※상기 강의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